

‘포엠 콘서트’ 다시 발걸음 땡니다

진진씨 음반 발매 기념 ‘시 하나 노래 하나’ 한자리 ... 7일 광주컨텐츠산업지원센터



‘일찍 나온 초저녁별이/지붕 끝에서 울기/평상에 내려와서 밥 먹고 울어라, 했더니/그날 식구들 밥그릇 속에는/별도 참 많이 뜨더라/잔 없이 보리밥 물 말아 먹는 녀석/옆에, 아버지 계시지 않더라’

안도현의 시에 최영경이 곡을 부친 ‘마당밥’. 엄마와 아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다. 메조소프라노 진진씨와 딸 이가영(10)양의 목소리다.

지금 광주에서 만날 수 없는 공연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게 ‘시 하나 노래 하나’가 주최한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 콘서트(이하 포엠콘서트·cafe.naver.com/poemconcert)’다. 2003년 처음 시작된 포엠 콘서트는 2년간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시노래’를 알렸다. 안도현·박남준·나희덕 등 시인들의 주옥같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고 영상과 사진, 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을 만났다.

진진씨 역시 시 하나 노래 하나의 멤버였다. 클래식 음악에 답답함을 느꼈을 때 숨통을 틔워준 게 포엠 콘서트였고, 그 때 불렀던 시노래로 ‘진진의 포엠송’, ‘가릉빈가’ 두 장의 음반도 발매했다.

그녀가 5년만에 세번째 시노래 음반 ‘바람의 무늬’를 내놓고 한보리·오영목·나무(박영희) 등 오랜 벗, ‘시 하나 노래 하나’와 함께 기념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포엠 콘서트가 중심이어서 다시 그 시작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컨텐츠산업지원센터(사직공원 옛 KBS 방송총국 자리).

이번 앨범에는 모두 11곡의 시노래가 담



‘시 하나 노래 하나’ 멤버로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한보리·진진·오영목(사진 왼쪽부터)씨. 진진씨의 새 음반 발매를 계기로 7일 공연을 갖는다.

겼다. ‘당신의 첫눈으로 오시면’(박남준 시), ‘사월의 노래’(곽재구 시), ‘6월’(김용택 시), ‘마당밥’(안도현 시), ‘어쩌면’(박두규 시), ‘민산’(안준철 시), ‘줄타’(이정록 시), ‘이별에게’(김현승 시) 등이다. 곡은 모두 작곡가 한보리의 작품이다. 한씨의 시 ‘꽃잎 한 송이’와 ‘오래된 미래’도 담겼다. 특히 ‘오래된 미래’는 몇년전 한씨가 오랜만에 귀국한 진진씨에게 선물한 곡이다. 왈츠 리듬의 곡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오스트리아 하이든 콘서트마스터 연주자를 졸업한 그녀는 광주와 오스트리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당분간은 광주에 머물며 노래를 부를 계획이다.

“많은 이들이 클래식을 어렵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1집이 정통 클래식에 가까웠다면 이번 음반은 재즈풍 등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클래식과 대중의 만남, 일반인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을 선곡했습니다. 음반 제목은 바람의 여러 종류를 생각해 봤어요. 살랑 살랑 봄바람, 나른한 오후의 포근한 바람처럼, 각각의 노래가 주는 무늬가 있다고 생각했고, 삶의 흔적도 무늬라고 생각했죠.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엄매하지 않고 대담해 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날 공연에서는 음반 수록곡과 함께 오랜 음악 친구 한보리와 오영목, 그리고 박두규 시인이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무와 나희덕, 진진이 나누는 토크 시간도 마련된다. 또 강윤숙·김성광·방종서·김경일·이상훈씨 등이 함께하며 한보리씨가 직접 제작한 풍경(風景)도 전시된다. 보랏빛 음반 자켓 그림은 이신숙씨가, 글

씨는 신양호씨가 썼다.

“한보리·오영목씨와는 10년 넘는 인연이에요. 클래식 활동만으로는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시에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는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고, 자연스레 스며들었죠. 포엠 콘서트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창작곡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점도 좋았구요. 이번 공연이 포엠콘서트의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진씨의 음반은 광주 카시오페아(062-511-3553), 좋은수커피(062-234-1909), 순천 페트로기(061-722-8853), 다움카페 ‘진진의 치명적인 노래’(cafe.daum.net/JINJINSONG)에서 구입할 수 있다. 티켓가격 3만원(음반 포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의 사회·문화 현상에서 우리 사회 추악함 들여다본다

장석원 ‘소통의 비밀’ 펴내 ... 2~14일 작품 전시회

“광주는 비판을 싫어한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광주를 향해, 또 광주의 문화에 대해 손가락을 끼치지 않는 전남대 미술학과 장석원(63·미술평론가) 교수가 한국현대미술비평서 ‘소통의 비밀’(발해 그라픽스 펴냄)을 펴냈다. 장 교수의 세 번째 평론집이자 여섯 번째 저서다.

최근 만난 장 교수는 “지난 20년간 내가 알고 있는 진실, 예술과 사회, 예술과 삶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었고, 그것들을 모은 책이 ‘소통의 비밀’”이라고 말했다.

책에는 국제화, 글로벌리즘, 정체성, 대안미술 등의 흐름에서 현장 속 저자의 생생한 비판과 고뇌의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다. 주로 광주비엔날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광주권 현대미술과 사회, 문화 현상들을 다루면서 요셉 보이스나 중국의 현대미술을 다룬 논문과 평론, 그리고 김보현, 김인경, 박수만, 김상연 등 18명의 작가에 대한 작가론이 실려 있다.

그는 “광주의 사회, 문화 현상을 다루지만 이 문제들은 곧 우리가 속한 사회의 추악하고 험난한 문화적 그림자를 반영한다”며 “또 이것들은 동시에 지자체장들이 꿈꾸



는 권력과 영광의 왜곡된 꿈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이번 비평서 출간과 함께 2~14일 광주 남도향토음식 박물관에서 ‘소통의 비밀’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장 교수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여는 전시다. 그

이전 전시에서 회화 작품 20여 점을 통해서도 예술과 사회, 예술과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가장 가슴에 와닿는 예술을 만들고자 할 때, 역설적으로 예술적 감흥에 취해 이리 그고 저리 비틀어 대는 작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말이다.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듯 흐느적거리는 아크릴과 유화 물감들은 사회를, 대안미술 등의 흐름에서 현장 속 저자의 생생한 비판과 고뇌의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다. 주로 광주비엔날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광주권 현대미술과 사회, 문화 현상들을 다루면서 요셉 보이스나 중국의 현대미술을 다룬 논문과 평론, 그리고 김보현, 김인경, 박수만, 김상연 등 18명의 작가에 대한 작가론이 실려 있다.

“광주의 사회, 문화 현상을 다루지만 이 문제들은 곧 우리가 속한 사회의 추악하고 험난한 문화적 그림자를 반영한다”며 “또 이것들은 동시에 지자체장들이 꿈꾸

연말부터 도서값 할인폭 15% 제한

발간된 지 1년6개월이 넘는 구간(舊刊)과 실용도서의 할인가가 이르면 연말부터 전면 제한되고 도서 할인폭이 정가의 15% 이내로 묶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관련 수정안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했다. 법안은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며 ▲ 18개월이 경과한 강행물에도 정가제를 적용하고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마일리지, 쿠폰 등)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발간 18개월 이내 신간의 경우 19%까지 할인할 수 있다. 구간을 비롯해 실용도서나 학습참고서는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구간에 대해 재고 관리 등을 위해 가격 인하를 허용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미술관에서 새벽을

국윤미술관, 내일부터 그룹새벽 회원전

미술관에 새벽이 열린다. 국윤미술관은 광주시의 후원으로 2~30일 그룹새벽(회장 서병욱) 회원들을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그룹새벽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만든 작가 그룹으로 2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대미술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통해 새로운 미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35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강동호·

강요상·고근호·김광길·김기범·김상선·김성식·나명규·박영환·박정일·박홍수·박환숙·서병욱·유상국·윤선중·이기원·이영실·이준립·이창훈·이형모·임종두·장미란·장용림·정용규·정철홍·정해영·채종기·최병규·최순임·한희원·홍경수·황순철씨 등 모두 32명의 회원들이 참여한다.

회원들은 회화에서부터 조각까지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의 062-232-73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근호 작 ‘프로포즈’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59 호남예술제

1956-2014 제59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4. 4. 23(수) ~ 6. 28(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4. 5. 13(화) ~ 5. 16(금)

- | 참가자격 |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경연기간 | 4월 23일(수) ~ 5월 29일(목)
- | 참가부문 | 음악·국악·무용·미술·작문
- | 접수방법 | • 방문신청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우편신청 :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 경연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세부일정은 접수마감후 확정 4월 21일(월) 발표)
- | 시상 | •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개인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미술·작문)
 •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영광군**

협찬 **SAMSUNG 삼성생명**